

엄마들의 힘찬 드리블... "16년만에 결실 맺어서 기뻐요"

교차로여성축구단 문체부장관배 전국여성축구대회서 준우승 차지

전북 교차로여성축구단(회장 김민자)이 문화체육 장관배 전국여성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대회 준우승은 교차로여성축구단이 16년만에 결실을 맺은 쾌거이다. 여성축구단 구성원은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팀으로 2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 됐으며 각 직업주부, 회사원, 간호사, 자영업 등 다양한 직종에서도 활약 중이다.

교차로여성축구단은 2002년 창단됐고 창단 이후 거르지않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속에 각종 대회에서 입상,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친목도모 삼아 시작된 축구모임이 이제는 개인의 건강과 자신감까지 키워주고 있다. 또한, 여러 약조건을 이겨내고 이번 문화체육장관배 대회에서 지방에서 최초로 준우승이란 쾌거를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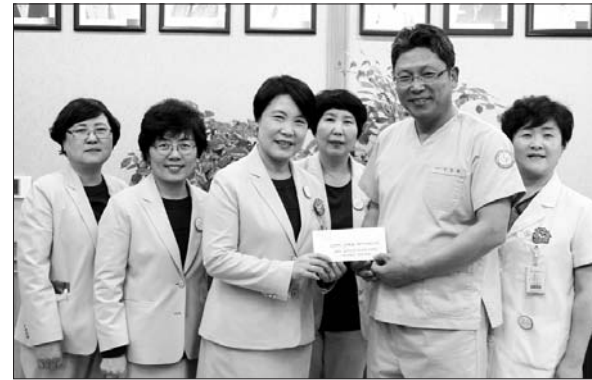
이윤구 단장은 "이러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창단부터 보이지않는 곳에서 경제적 도움을 주신 유창희 전주교차로신문사회장, 장완성 후원회장 도움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갑대은 전북축구협회장, 이영국 전주시축구협회장 비롯, 전주시 각 연령별(40대, 50대, 60대, 70대) OB축구팀들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자 교차로여성축구단 회장은 "대부분



전북 교차로여성축구단(회장 김민자)이 문화체육장관배 전국여성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교차로여성축구단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주부들로 구성되어 한 남편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이지만 최선을 다해 볼에 있을 전북축구협회장배 우승을 목표로 연습하고 있다."며, "여성 축구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이번 주말에도 어머니들의 힘찬 드리블은 계속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예수병원 간호부 신우회, 암센터 건축기금 모금

개원 120주년을 맞은 예수병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병원 암센터 건축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예수병원 간호부 신우회는 "가을 소풍, 연말 송년회 행사를 취소하고 그 비용을 절약해 예수병원 암센터 건축에 벽돌 한 장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3,000만원을 모금해 주춧돌을 놓았다."며, "예수병원 간호사 670명으로 구성된 간호부 신우회는 (불우이웃돕기, 간호대학생 장학금 지원, 전주교도소 재소자 후원, 동문선교사 선교비) 등 비록, 다양한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장년퇴임을 맞은 예수병원 행정부 이삼배 부장이 1,000만원, 11월 1일자로 행정부장에 임명된 이상희 행정부장이 500만원 예수병원 암센터 건축 기금으로 후원했다. 행정부 직원들도 뜻을 한 마음으로 모아 500만원 모금해 예수병원 암센터 건축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한편, 예수병원 암센터는 지난 9월 6일 예수병원 암센터 기공식을 하고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건축 공사가 진행 되고 있다. 예수병원 암센터가 완공되면 지역민의 암치료와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교대 전국 초·중등교사 국악경연대회 성료

최근 '제17회 전주교대 전국 초·중등교사 국악경연대회'가 전국에서 온 15명의 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전주교육대학교 음악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주최하고, 국립민속국악원과 전주시립국악단, 한국국악교육학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의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국악 경연대회이다.

경연 결과, 원장형 류 대금산조를 연주한 충북 청주의 가덕초등학교 김태동 교사가 전체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최우수상 팀에게는 전주교대 총장상, 그리고 우수상과 장려상에게는 국립민속국악원장상과 한국국악교육학회장상을 각각 시상했다. 특히 이번 대상 수상자에게는 2017 대회에 이어 전주시립국악단과의 협연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도교육청 명사초청 특강... 건축가 유현준 교수 초청

전주교육대학교는 오는 11월 5일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어떤 학교에서 아이를 키울 것인가'를 주제로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

유현준 교수는 현재 유현준건축사 사무소 대표 및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활동 중이며 tvN '알쓸신잡' 시즌2, '어쩌다 어른', KBS '명견만리' 등 방송 및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어디서 살 것인가' 등의 저서를 통해 알려져 있으며, 건축 지식과 원리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친숙하다. 이번 특강에서는 전북도내 교사, 예비교사 학부 및 전주시민 대상으로 '배움의 공간인 학교'를 주제로 교육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특강은 전북도교육청과 전주교육대학교가 공동주최로 실시되며 참여는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어떤 학교에서 아이를 키울 것인가



김제시 청원 한마음 화합대회, 환경캠페인 등으로 대체 추진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2018년 청원 한마음 화합대회를 행사 및 체육대회 등 기존 방식이 아닌 시민에게 다가가는 환경캠페인 등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청원 한마음 화합대회는 일 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간 화합과 소통을 통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취지로 행사 후 체육대회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로 인해 김제육교 및 김제역 인근 소규모 상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가 김제시장에게 건의하여 2018 청원 한마음 화합대회는 4개팀으로 구분하여 지난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팀별로 주요교차로에서 김제육교까지 시민에게 다가가는 환경캠페인 후 김제육교 및 김제역 인근 식당에서 부서별로 식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지서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경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 화합대회를 기존 방식대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님께 건의를 하여, 변경 시행하게 되었는데 많은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번 김제시청 청원 한마음 화합대회에 대해 김제육교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공무원 등이 함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지만, 공사기간 도로가 차단되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작은 배려가 시민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번에 느꼈다."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 속에서 생각해주는 공무원 사회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의료원, '신나는 건강대학' 수료식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지난 30일 지하 대강당에서 2018년 제7기 신나는 건강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건강대학에는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88명이 수료했으며, 전문 의료진의 의학강좌, 웃음치료, 운동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로 7번째로 운영된 신나는 건강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의학정보는 물론 운동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벼운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또한 행복한 노년을 위해 웃음치료 강사와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남원의료원 오진규 관리부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남원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투 기자



남원춘향로타리클럽,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화활동

국제로타리 3670지구 남원춘향로타리클럽(회장 박영희) 관계자 등 20여명은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지난 30일 이백교 아래 수원지 및 폐문교 부근 수원지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태풍 및 우기철에 상류지역에서 밀려온 생활 및 영농 폐기물 등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쓰레기를 집중수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남원춘향로타리클럽회원들께 감사의 드린다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철저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보호펜스를 설치 관리 중이고, 수시순찰 및 CCTV를 통한 상시감시를 하고 있으며, 주 2회 관리자 점검, 1일 2회 보호구역 순찰로 불법행위 단속 등 상수원보호구역 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남원=김기투 기자

무주경찰 주계파출소, 제2금융권 범죄예방 간담회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 주계파출소 김홍근은 최근 제2금융권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관내 금융권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간담회에는 CCTV등 범죄수사 시설 작동상태를 점검하면서, 최근 범죄사례 및 범죄예방법을 소개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제2금융권은 사람의 왕래가 적어 강도 등 범죄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에 신경을 써야 범죄피해를 겪을 수 있다.

한편 CCTV등 기계시설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비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미리준비하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홍근 소장은, "제2금융권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치안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임실경찰 관촌파출소 협력치안 강화 간담회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 관촌파출소(소장 강석록)는 지난 31일 관촌파출소에서 협력치안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가을 농산물 수확철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절도 등 범죄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비하고자 관촌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문정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범죄예방관련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강석록 소장은 "시기적으로 일 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 가을철에 농산물 절도 및 빈집털이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께서 파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약 순찰제를 적극 요청해 주시고, 장기 출타 시 이웃 간 서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 알려드립니다 ◀◀

예수병원 개원 120주년 기념예식

개원 120주년을 맞아 예수병원이 희망찬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고자 기념예식을 엮는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11월 2일(금) 오후 4시
장소: 예수병원 4층 예매실